

Vol.6 No.10
2012.09

기계기술정책

KIMM Technology Policy

동남아시아지역 기계산업 동향 분석

- 필리핀 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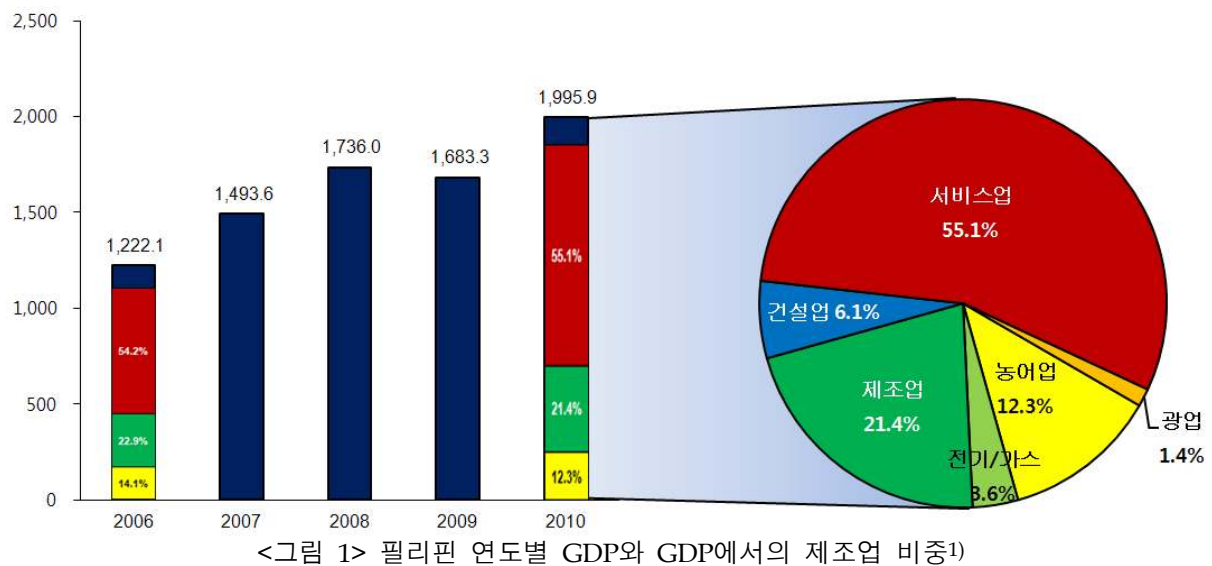


1. 필리핀 경제 개요

□ 필리핀은 7,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구 9,400만 명의 국가로 2010년 GDP는 1,996억 달러로 세계 46위 기록

○ 2006년 이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3%를 상회

○ 2010년 기준 GDP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약 21% 수준이며, 제조업 비중은 2006년 대비 0.9%p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0.9%p 증가



□ 필리핀의 주요 산업은 서비스 부문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²⁾와 관광, 제조업 부문은 전자, 석유화학, 음식료품 등이 꼽힘

○ 필리핀은 영어 구사 능력, 친절한 국민성, 임금 경쟁력을 강점으로 인도와 함께 세계 최대 BPO 산업국으로 부상

- 필리핀 BPO 산업은 콜센터(Contact Center), 소프트웨어 개발, ICT 인프라 관리, 기술 지원 등 ICT-BPO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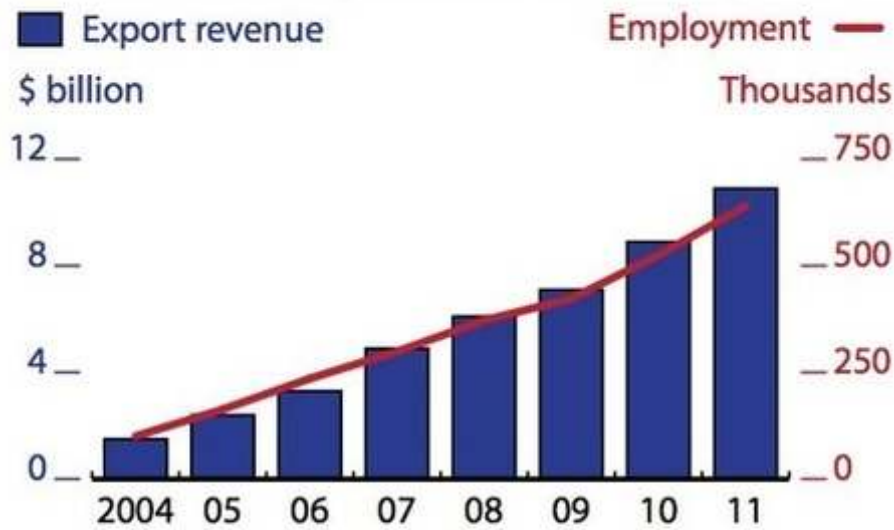
* 자료 복사 작성(Transcription)³⁾, 금융·보험 등의 Backoffice 운영 아웃소싱 포함

- 2011년 필리핀 BPO 산업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110억 달러의 총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고용 규모는 총 63만8000명 수준

1) Worldbank, Statistics Philippine

2)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자원 집중 및 비용 절감을 위해 IT 시스템, 구매, 인사 및 제품 개발 일부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

3) 전문 의료, 소송 등에 대한 구술 내용을 자료로 옮기는 서비스



<그림 2> 필리핀 BPO 산업 매출액 및 고용 추이⁴⁾

- 필리핀 내에는 미국 우수 콜센터 180여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Voice-BPO의 비중이 70%에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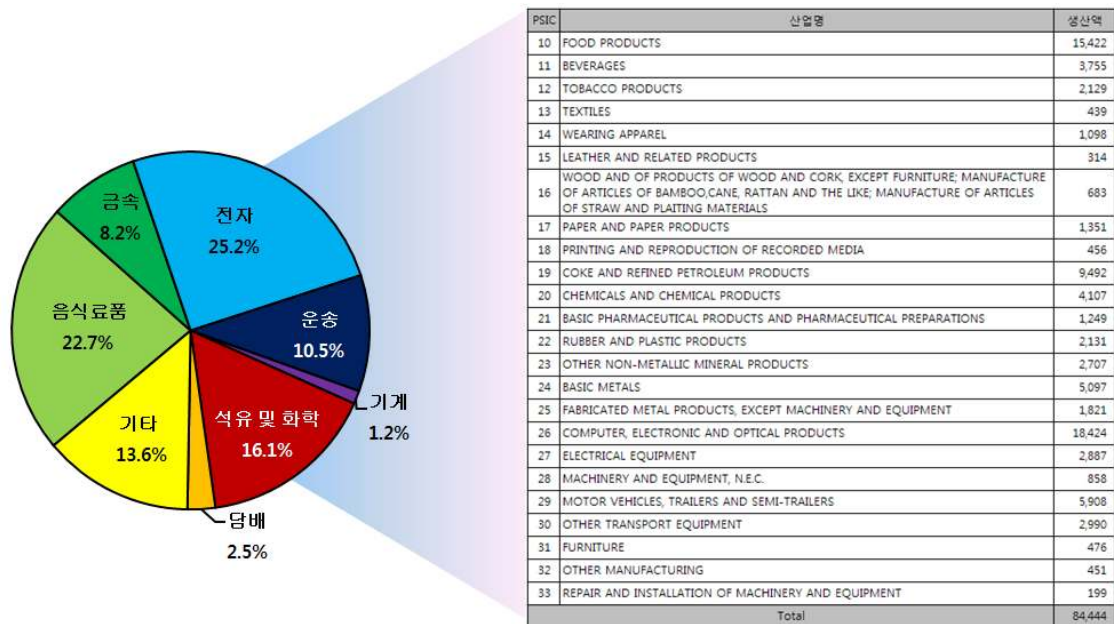
<그림 3> 필리핀에 진출한 주요 BPO 기업 현황⁵⁾

- 필리핀 BPO 산업 협회는 최근 'Roadmap 2016'을 수립하고 2016년까지 매년 20% 이상의 성장, 총 매출 250억 달러 달성, 필리핀 GDP의 9% 기여,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의 목표 제시

4) KOTRA Globalwindow <필리핀 최고 유망산업 IT-BPO - 2011년 IT-BPO 총 매출액 110억 달러 달성 ->, 2012년 4월 25일 작성에서 인용

5) KOTRA GlobalWinow, '필리핀 BPO 산업 현황'(2009)에서 인용

□ 필리핀 제조업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약 3.08%의 생산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전자, 석유화학, 음식료품 등이 주요 제조업



<그림 4> 필리핀 제조업 생산액 구성 및 기계산업의 위치⁶⁾

○ 2010년 제조업 총 생산액은 약 844억 달러이며, 종사자 수는 약 87만 명

<표 1> 필리핀 제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변화 추이(억 달러, 천 명)⁷⁾

구분	2001	2003	2005	2006	2008	2009	2010
생산액	432.6	545.4	701.5	748.5	745.8	793.4	844.5
부가가치	154.2	135.6	165.0	209.2	196.7	252.3	214.3
종사자수	942.2	986.9	1,025.8	973.2	862.7	953.8	871.8

○ 전자, 석유화학의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독자적 기술 축적보다는 글로벌 기업의 현지 합작 투자에 의해 성장

- TI는 1979년 반도체 칩 조립·테스트 기지 진출 이후 2007년 클라크 지역에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는 등 가장 활발한 투자 집행
* 인텔(미국), 삼성전자(한국), Acer(대만), Epson(일본), Lexmark(미국) 등이 주요 기업
- 석유화학 산업은 오일 정유, 전자 부품 제조용 플라스틱 사출 등이 주를 이루며, Shell(네덜란드), 3M(미국) 등이 진출

○ 음식료품 산업은 로컬 업체인 San Miguel의 생산액이 전체 산업 생산액의 90%에 육박하는 독점 구조 형태

6) Statistics Philippine, 1,000 페소 = 24.09달러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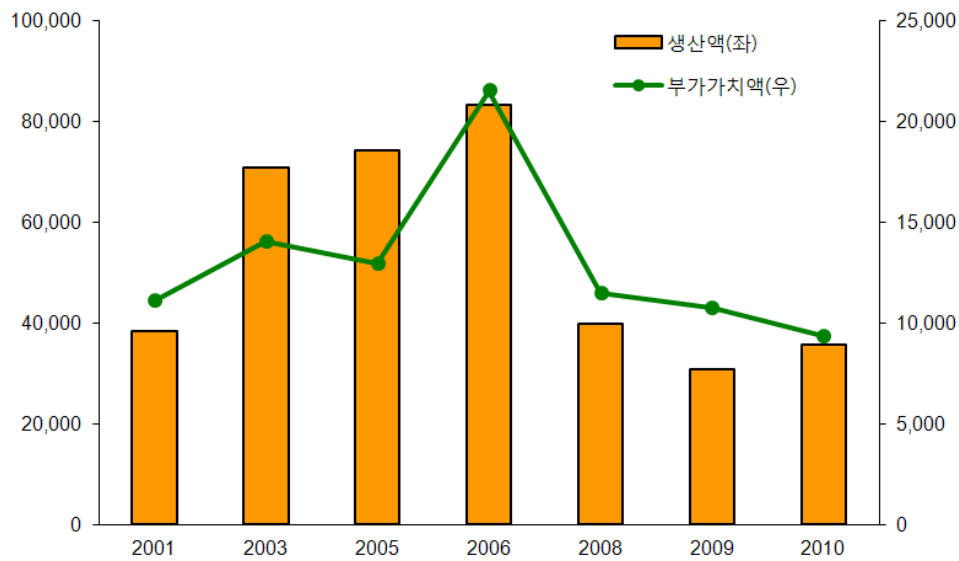
7) Statistics Philippine

2. 필리핀 기계산업 현황

□ 2010년 기준 필리핀 기계산업 생산액은 10.5억 달러(1.2조 원)로 우리나라 기계산업 생산 규모의 약 1.3%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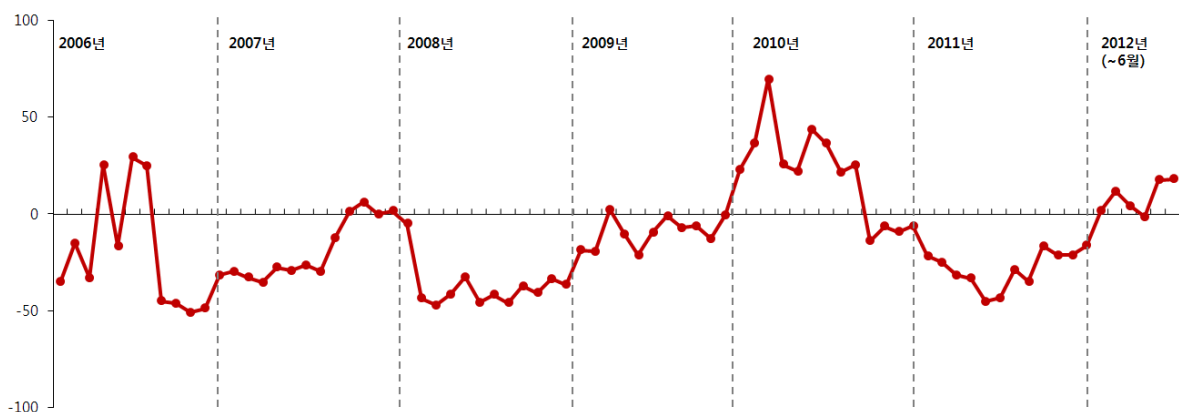
○ 2006년 832억 페소(20억 달러)의 사상 최대 생산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생산 급감 이후 정체기가 지속

○ 2010년 부가가치액은 93억 페소(2.2억 달러)로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그림 5> 필리핀 기계산업 생산 및 부가가치 추이(백만 페소)⁸⁾

○ 생산지수(2000=100)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이후 재반등 추세



<그림 6> 필리핀 기계산업 생산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추이(%)⁹⁾

8) Statistics Philippine, 종사자 수 20인 이상 사업체 기준

9) Statistics Philippine, Index of Manufacturing Statistics

○ 2010년 기준 사업체 수는 약 128개, 종사자 수는 약 15,322명으로 2006년 대비 산업체 수는 약 1% 감소한 반면, 종사자 수는 약 7.5% 감소

- 인도네시아 대비 사업체 수는 약 29%, 종사자 수는 19% 수준
- ‘생산액/종사자 수’로 측정한 생산성 결과 필리핀(0.78억 원)이 인도네시아(0.40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상기 분석 결과는 필리핀 기계산업은 생산 제품 종류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저부가가치 단순·범용 제품 생산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

<표 2> 필리핀 기계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¹⁰⁾

	2006	2007	2008	2009	2010
업체 수	133	N/A	132	231	128
종사자 수	20,897	N/A	16,020	13,228	15,322

* 2007년 데이터는 누락으로 인한 생략

□ 필리핀의 기계산업 교역은 단순 가공형 산업 구조로 인해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며,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추세

○ 수출은 2011년 현재 약 6.5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오히려 감소 추세를 기록

○ 수입은 2011년 약 35억 달러로 2007년 이후 연평균 9.3% 증가

- 기계산업의 무역특화지수(TSI) 또한 2007년 -0.56에서 -0.69로 악화되며 절대적 수입 특화 수준에 근접

<참고> TSI의 정의와 의미

■ TSI(Trade Specific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

- ☞ 특정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무역 경쟁력 분석)
- ☞ (특정 품목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으로 산출되며, $-1 \leq TSI \leq 1$ 의 값을 가짐
- ☞ TSI가 +1이면 수입이 없이 수출만 이루어지는 완전 수출 특화인 것이고 -1이면 수출 없이 수입만 이뤄지는 완전 수입특화인 상태를 의미(지수가 0인 상태는 비교우위 중립 상태)
- ☞ 따라서 무역특화지수가 0 ~ +1이면 해당국 특정품목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무역흑자 즉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반대인 경우, 무역적자로 대외 경쟁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 TSI가 0.8이상이면 절대적 수출 특화 품목, -0.8이하이면 절대적 수입 특화품목으로 볼 수 있음
- ☞ $-0.8 \leq TSI \leq -0.4$ 구간인 경우 수입대체 초기, $-0.2 \leq TSI \leq 0$ 구간인 경우 수입대체 말기로 해석

10) Statistics Philippine, 종사자 수 20인 이상 사업체 기준

<표 3> 필리핀 기계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입(백만 달러)¹¹⁾

SITC	품목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수입	TSI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TSI
712	스팀터빈	0	10	-1.00	0	12	0	42	0	66	0	58	-1.00
713	내연기관	2	157	-0.97	3	153	1	134	2	172	3	176	-0.97
714	비전기식 엔진 및 모터	0	47	-1.00	1	18	0	52	0	27	0	29	-1.00
718	기타 원동기	0	6	-1.00	0	6	0	17	0	20	1	38	-0.95
721	농업용기계	0	17	-1.00	0	23	0	22	0	30	0	46	-1.00
722	농업용 트랙터	0	8	-1.00	0	9	1	7	0	7	1	14	-0.87
723	건설광산기계	35	141	-0.60	43	213	34	175	31	236	33	279	-0.79
724	섬유기계	9	27	-0.50	13	25	6	22	5	26	3	36	-0.85
725	제지기계	2	14	-0.75	2	18	4	10	3	15	2	23	-0.84
726	인쇄기계	0	43	33.00	1	85	1	52	4	79	3	145	-0.96
727	음식료품기계	6	31	-0.68	8	50	5	36	5	39	7	78	-0.84
728	기타 특수기계	258	992	-0.59	150	959	201	610	129	1,057	61	1,068	-0.89
731	금속절삭기계	3	47	-0.88	0	42	1	31	0	50	3	73	-0.92
733	금속가공기계	3	22	-0.76	1	26	0	17	1	26	1	24	-0.92
735	공작기계부품	28	84	-0.50	25	70	13	46	26	95	44	123	-0.47
737	기타공작기계	2	24	-0.85	2	26	2	21	2	29	4	38	-0.81
741	냉동공조기계	185	249	-0.15	178	304	146	250	230	289	256	323	-0.12
742	액체펌프	45	71	-0.22	38	83	41	81	44	103	52	130	-0.43
743	기체및가스펌프	44	132	-0.50	45	137	42	123	69	159	59	198	-0.54
744	운반하역기계	21	125	-0.71	36	154	21	147	31	185	34	227	-0.74
745	기타비전기식 공작기계	3	67	-0.91	7	107	5	76	1	112	1	130	-0.98
746	베어링	5	25	-0.67	13	25	12	30	17	38	22	53	-0.41
747	밸브	13	48	-0.57	5	58	6	57	6	63	6	94	-0.88
748	동력전달장치	12	35	-0.49	15	43	6	42	20	52	16	61	-0.58
749	비전기식 기계류 부품	28	64	-0.39	32	73	26	52	25	65	34	81	-0.41
	계	704	2,486	-0.56	618	2,719	574	2,152	651	3,040	646	3,545	-0.69

○ 주요 수입 품목(1억 달러 이상 수입)으로는 기타 특수기계(728), 냉동공조 기계(741), 건설광산기계(723), 운반하역기계(744) 등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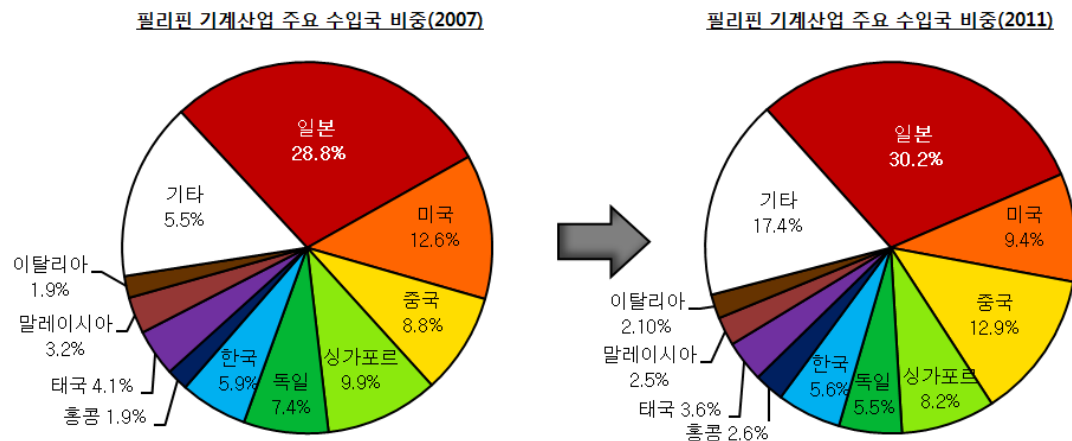
- 수입액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9%

- 음식료품 및 섬유,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포장기계 수요증가로 기타비전기식 공작기계(745) 수입이 2007년 대비 연평균 18% 증가

○ 수출에서는 냉동공조기계(741)가 독보적이며 기계산업 전체 수출의 4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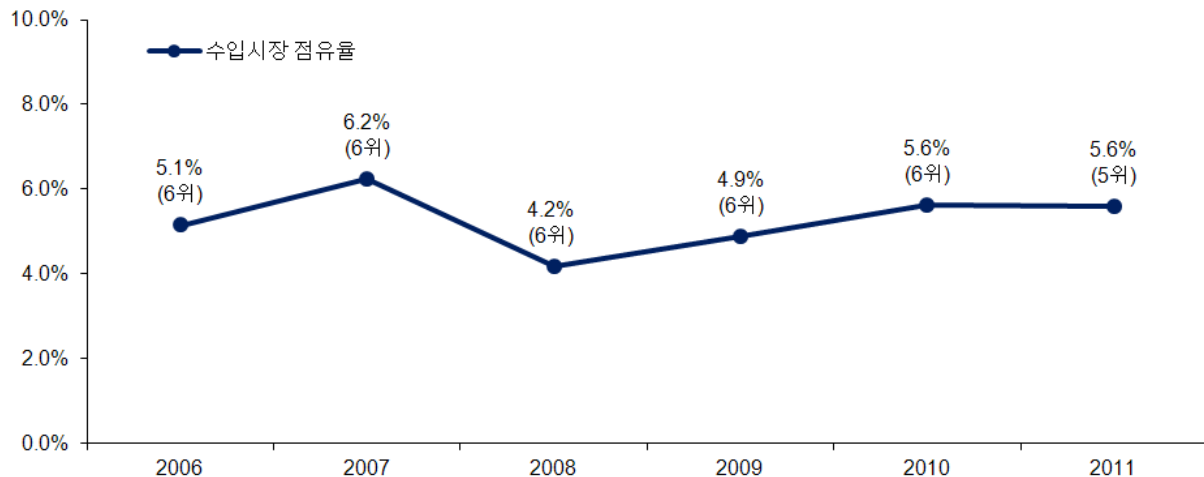
11) UN Comtrade SITC Rev. 3

-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중국 등 10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 약 2억 불을 수출하며 주요 수입국 5위를 기록
 - 수입 점유율 1위 국가는 기록한 일본으로 2011년 10.7억 불을 수출 하였으며 10개국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
 - 10개 국 가운데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기계업체의 생산 기지가 설립되어 있는 ASEAN 회원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그림 7> 필리핀 기계산업 주요 수입국¹²⁾

- 국내 기계 제품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07년에 6.2%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현재는 5.6%로 다소 감소



<그림 8> 우리나라의 필리핀 기계 산업 수입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¹³⁾

12) UN Comtrade SITC Rev. 3, 대만은 2011년 통계 누락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

13) UN Comtrade SITC Rev.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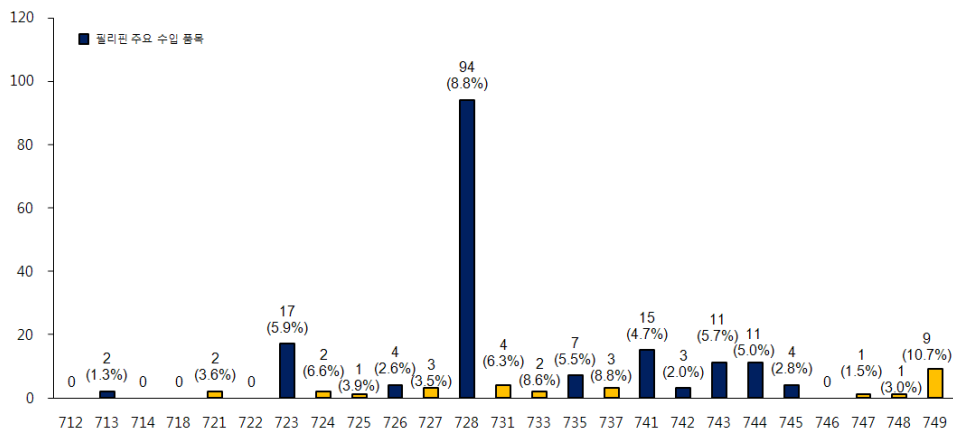
○ 10대 품목에서의 수입국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내연기관(713)을 제외하고는 10위 권 내 점유율을 기록

- 내연기관(713)은 수입 점유율 약 1.3%로 수입국 순위 11위를 기록

<표 4> 필리핀 기계산업 주요 품목 별 수입국 순위(2011년 기준)¹⁴⁾

순위 Code	1	2	3	4	5	6	7	8	9	10
713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태국	미국	말레이시아	독일	네덜란드
723	일본	싱가포르	중국	미국	독일	한국 (5.9%)	태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영국
726	일본	홍콩	중국	독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말레이시아	한국 (2.6%)	이탈리아
728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한국 (8.8%)	독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735	일본	싱가포르	미국	한국 (5.5%)	중국	태국	독일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741	중국	일본	미국	태국	한국 (4.7%)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742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호주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태국	한국 (2.0%)
743	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말레이시아	벨기에	한국 (5.7%)	독일	태국	인도네시아
744	중국	일본	태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한국 (5.0%)	미국	독일	홍콩	프랑스
745	이탈리아	중국	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한국 (2.8%)

○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수출은 필리핀 10대 수입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특수기계(728), 건설광산기계(723), 냉동공조기계(741)의 수출 규모가 큰 편



<그림 9> 우리나라의 품목별 필리핀 수출액(2011년, 백만 달러)¹⁵⁾

14) UN Comtrade SITC Rev. 3, 수입액 1억 달러 이상 품목 대상 분석

15) UN Comtrade SITC Rev. 3

3. 필리핀 기계기술 경쟁력 현황

- 필리핀의 높은 기계 수입 의존도는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외국계 기업의 합작 투자, 하청의 형태로 발전한 전자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을 통해 확인
- 전자산업은 필리핀 무역산업부가 선정한 6대 유망산업* 중 하나로 필리핀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품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
 - * 고용, 성장잠재력, 산업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산업, IT-BPO, 전자산업, 광업, 주택건설업 및 농업을 6대 유망산업으로 선정
- 2010년 전자산업의 총 수출액은 282억 달러로 2007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에서의 비중 또한 50%대에 근접

<표 5> 필리핀 전자산업의 수출액 및 수출 비중(백만 달러¹⁶⁾)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액	26,383	29,020	25,784	20,238	28,177
수출 비중	48.8%	50.0%	42.7%	44.1%	48.2%

- 전자산업 중에서도 반도체, 통신기기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등 전자 부품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수출 기준 전자산업의 60% 수준

<표 6> 필리핀 전자 부품산업의 수출액 및 전자 산업 내 비중(백만 달러¹⁷⁾)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액	17,827	18,485	16,337	11,600	17,234
전자 산업 내 비중	67.6%	63.7%	63.4%	61.5%	61.2%

- 필리핀 전자산업에서 부품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반도체 등 글로벌 기업의 부품 조립 공장과 협력 업체들이 필리핀에 다수 진출했기 때문
 - PEZA(Philippines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된 전자산업 분야 외국계 기업은 총 311개¹⁸⁾이며, 인텔, TI, 파나소닉, 히타치 등이 입주
 - 한국의 경우 1997년 삼성전기, 2001년 삼성전자 진출 이후 관련 협력 업체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총 80여개의 업체가 입주

16) UN Comtrade SITC Rev. 3

17) UN Comtrade SITC Rev. 3

18) 2008년 기준 통계

- 필리핀 소재 글로벌 기업의 공장에서는 3국에서 수입한 원료·모듈을 부품의 형태로 조립·패키징하고, 이를 재수출

<표 7> 필리핀에 진출한 글로벌 전자기업 현황¹⁹⁾

국가	회사	생산 품목	소재지	PEZA 등록
미국	Texas Instrument	MCU, MPU 등	Baguio Eco Zone	2001
	Intel Technology	CPU 등	Gateway B.P - SEZ	1995
일본	Epson Precision	LCD projector 등	Laguna - SEZ	1995
	Fuji Electric	반도체 등	Carmelray - SEZ	1995
한국	Dae Kyung	위성안테나 등	Cavite Economic Zone	1993
	Daeduck	PCB 등		1996
	Hye-Sung Industries	음향기기		1996
	Keyrin Electronic	마이크로 스피커	Calamba - SEZ	1993
	Yu Jin Optical Electronics	DVD-RW 등		2002
	Samsung Electro-machanics	MLCC, TFCR		1997
	Samsung Elecrtonic Philippines	광학디스크 등		2001

* SEZ: (Special Economic Zone) : 외국 자본과 기술도입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 경제 지구로 필리핀 내 64개 지역 존재

- 글로벌 전자 부품 기업의 필리핀 현지 공장은 기타 특수기계(728), 금속 절삭기계(731), 공작기계부품(735), 비전기식 기계류 부품(749)의 주요 수요처
- 필리핀 내 기계 제조 기반이 위약한데다, 외국계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대한 수요도 작은 편
- 우리나라의 한미반도체 또한 2011년 미국 Sunpower 합작사인 First Philippine Electric에 태양광 제조검사 장비를 수출하였으며, HNC는 2012년 현지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에 클린룸 설비를 수주
- 그 밖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전자 부품 기업에 금형, 공작기계 부품, 사출성형, 금속 프레스 기계 등을 공급하는 한국기업 다수 입주

<표 8>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계 기계기업 현황²⁰⁾

회사	생산 품목	소재지	PEZA 등록
CJ TEC CORPORATION	성형 플라스틱	Cavite Economic Zone	2004
CKY TECHNOLOGY	플라스틱 사출 부품 등		2005
E-PLASTICMAKE,INC.	플라스틱 패키징		2003
FORTUNECROSS	고정밀 마이크로 샤프트, 웹 나사 등		2004
JU-YOUNG ELECTRONICS	금속 부품 프레스		1991
PARK TERMINAL PRECISION	전자·전기제품 관련 부품		1997
S&G PRECISION, INC	금속/합금 금형 제작	Calamba - SEZ	2005
SAMHONGSA	마이크로 DC모터 조립, 가공		2006

19) KOTRA Globalwindow, <호황기 구가하는 필리핀 전자산업>, 2010년 9월 23일

20) 마닐라서울신문 2010년 9월 20일자 기사 <한국 및 외국기업의 업종별 필리핀 투자진출 현황>

□ 필리핀 수출개발위(EDC, Export Development Council)가 발표한 미래 필리핀을 이끌어갈 제조업 중 하나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포함

○ 필리핀 정부는 자동차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2010년 新MVDP*에 서명, ASEAN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 면제를 추진

* MVDP(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은 자동차산업 발전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일본 완성차 업체의 필리핀 현지 조립 공장 설립에 기여

○ 2011년 현재 필리핀 자동차 부품 산업은 15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실적

- 일본 자동차 업체는 필리핀 현지에서 트랜스 미션(수동 포함), 엔진, 등속 조인트, 차체 프레스 등을 생산하여 일본, 태국, 독일 등으로 수출

* 필리핀의 250여 개 자동차 부품사 중 90% 이상이 일본계

- 필리핀 로컬 업체는 고무 · 플라스틱 부품 생산에 국한

<표 9> 필리핀 주요 자동차 부품 업체 현황²¹⁾

계열사	국가	현지 업체명	주요 생산 부품 및 활동
도요타	일본	Toyota Motor Philippines	엔진
		Toyota Autoparts Philippines	MT, 등속조인트
혼다	일본	Honda Parts Manufacturing	MT, 보수용 프레스제품
		Honda Engine Manufacturing Philippines	엔진
미쓰비시	일본	Asian Transmission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 기어, 액셀 엔진
이즈즈	일본	Isuzu Philippines	디젤엔진
		Isuzu Autoparts Manufacturing	MT
닛산	일본	Nissan Motor Philippines	엔진, 엔진부품, 범퍼, 차체프레스부품
마카베아루미	일본	Creative Diecast Philippines	자동차용 알루미늄 부품
포드	미국	Ford Motor Company Philippines	엔진
기타 부품사	케힌(日), 코세알루미늄공업(日), 東海理化(日), 도요타방직(日), 미쓰비시전기(日) 등		

* MT: 수동 트랜스미션

- 일본 자동차 업체는 KD(Knock Down)²²⁾ 방식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요소 부품은 일본으로부터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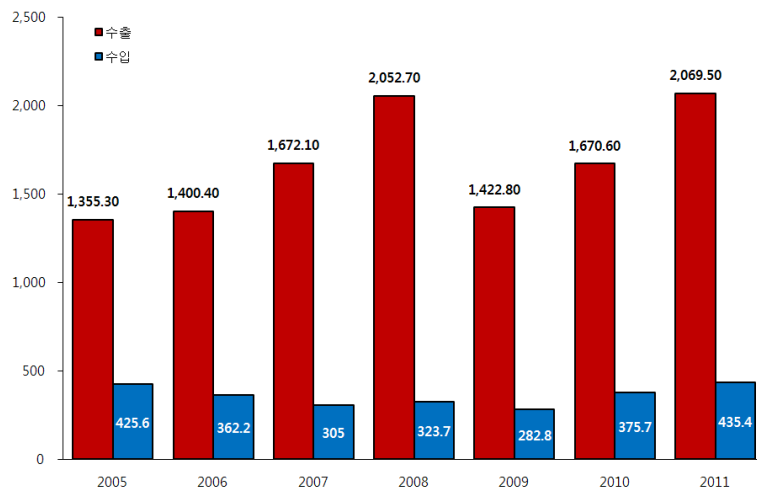
- 2011년 현재 필리핀 자동차 부품 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로 필리핀은 일본계 기업의 아시아 역내 분업 파트너 역할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필리핀의 주요 산업'(2008)에서 인용·재구성

22) 요소 부품을 수입해서 현지(필리핀)에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일본 기업은 수출 관세의 인하, 원가 경쟁력 확보의 장점이 있으며 필리핀은 기술 획득,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의 효과 획득이 가능

<표 10> 필리핀 자동차 부품 주요 수출·입 국가 순위(2011년, 백만 달러)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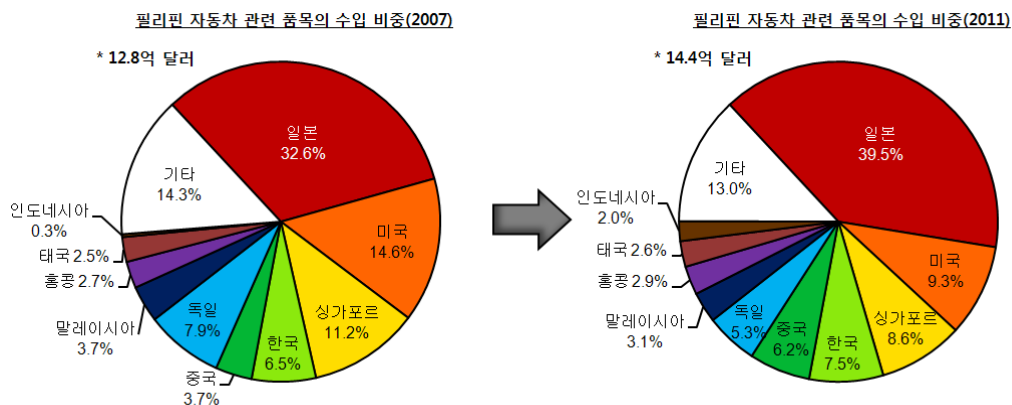
순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0개 국 계
수출	일본 (39.0%)	태국 (20.1%)	독일 (8.4%)	인니 (5.3%)	미국 (4.9%)	중국 (3.5%)	베트남 (3.2%)	인도 (2.9%)	남아공 (2.2%)	영국 (1.4%)	1,881.6 (90.9%)
수입	일본 (59.4%)	인니 (12.3%)	태국 (8.6%)	중국 (3.8%)	한국 (2.7%)	말레이 (1.6%)	독일 (1.4%)	싱가폴 (1.1%)	홍콩 (0.7%)	인도 (0.6%)	402.0 (92.3%)
교역	일본 (42.6%)	태국 (18.1%)	독일 (7.2%)	인니 (6.5%)	미국 (4.5%)	중국 (3.5%)	베트남 (2.7%)	인도 (2.5%)	남아공 (1.8%)	영국 (1.2%)	2,270.6 (90.6%)



<그림 10> 필리핀 자동차 부품 수출입 현황(백만 달러)²⁴⁾

○ 상기 필리핀 자동차 부품 산업 구조는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의 높은 일본 수입 의존도로 귀결

- 내연기관(713), 기타 특수기계(728), 금속절삭기계(731), 공작기계부품(735) 등 자동차 부품 생산용 기계의 일본 비중이 압도적



<그림 11> 필리핀 자동차 부품 생산용 기계류 주요 수입국 비중²⁵⁾

23) UN Comtrade SITC Rev. 3

24) UN Comtrade SITC Rev. 3

- 필리핀은 우선투자계획(Investment Priority Plan)*에 농업을 포함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관련 농기계산업은 매우 영세

* 2011년 기준 필리핀의 우선투자계획에 포함된 산업은 농업, 수산업, 조선업, 주택 개발 산업, 에너지, 녹색산업 등

- 필리핀 농기계 업체 수는 약 45~50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5~6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 철공소 수준에 불과

-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극히 부족하여 표준모델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주문생산 형태(OEM)로 생산하는 실정

- 필리핀 농업용 기계(721)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기계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가 부족함을 시사

- 우리나라와는 총리실,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OICA 등과 연계하여 농기계와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협력에 주력

* 2010년 총리실에서는 필리핀에 1,200만 달러를 지원

4. 결론 및 시사점

- 필리핀 기계산업 생산과 수출 규모는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약 1.3%~1.7%(2010년) 수준이며, 발전 상황은 80년대 초중반 수준

- 2006년 이후 생산 규모 증가가 정체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액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생산 규모와 업체 수, 수출 실적 등의 관점에서 「기계기술정책 8월호」에서 분석한 '인도네시아 기계산업'에 비해 뒤쳐지는 수준

- 100여개에 불과한 사업체 수*, 1억 불 이상 수출 품목이 냉동공조기계(741) 1개에 그치는 등 생산 제품 종류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저부가가치 단순·범용 제품 생산에 머물러 있음

- 업체 수와 수출 규모 등 주요 실적 지표가 2006년 이후 소폭 하락

- 2007년 이후 무역특화지수는 절대적 수입 특화 수준(-0.69)에 근접

25) UN Comtrade SITC Rev. 3

□ 필리핀 기계산업의 경쟁 열위는 글로벌 기업의 현지 합작 투자 및 하청의 형태로 발전한 전자산업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을 통해 확인

○ 필리핀 전자산업은 글로벌 기업의 부품 조립 공장 및 협력 업체의 진출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필리핀 현지 조립 생산 및 이를 재수출하는 특징

- 자국에서 사용하던 기계류 설비를 구비함에 따라 현지 공장은 기타 특수기계(728), 금속절삭기계(731), 공작기계부품(735) 수입의 주요 수요처

- 수입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기업 협력 업체의 현지 공장에서 금형, 공작기계 부품, 사출 성형, 프레스 기계 등을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

○ 필리핀 자동차 부품 산업은 일본 기업의 현지 진출에 의해 성장하였으며, 요소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조달하여 부품·시스템을 생산하는 구조

- 일본 자동차 기업용 부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인해, 부품 생산시스템(기계)의 조달 또한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

- 기계 총 수입에서의 일본의 비중(30.2%)에 비해 부품 생산시스템에서의 일본의 비중(39.5%)이 훨씬 높음으로부터 이를 확인

- 필리핀 로컬 업체는 고무·플라스틱 부품 등 범용 제품 생산에 국한

○ 필리핀 농기계산업은 정부의 농업 육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영세 철공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나라 등과 농기계 보급 및 영농 기술 이전에 주력

□ 앞서 분석한 인도네시아에 비해 필리핀 기계산업 규모가 1/3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와는 다른 방식의 협력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한국기계산업 발전 단계에서 보았을 때, 양국의 발전 격차는 약 5년 정도가 존재하며 국가 차원의 기계산업 육성 정책에도 시각의 차이 발견

- 인도네시아는 모방개발 형태의 기계산업 육성을 추진한 반면, 필리핀은 전방 산업의 합작투자·현지진출·하청생산을 통한 기계산업 발전을 기대

- 최근 정책 기조에서도 인도네시아는 2011년 다운스트림 제조업 육성의 일환으로 기계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필리핀은 기계류 관세 인하를 통한 설비 투자 촉진에 주력

- 기계분야 양국 협력 유망 분야로 바이오매스 개발, 수질 개선, 자기부상 열차 등을 제안
 - 필리핀 열대 우림을 활용한 발전 플랜트 건설(바이오 매스), 홍수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식수 부족(수질 개선) 문제 해결이 시급
 - 자기부상열차는 마닐라의 교통 정체와 필리핀 지질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 가능
 - 공동 R&D 외에 산업 정책 추진 경험 전수 및 정책 자문 형태의 협력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필리핀 투자청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민관합동개발사업(PPP) 추진 또한 對필리핀 협력 기회를 확대할 전망
 - 필리핀 투자청은 2012년 1,420억 페소(3.7조 원)를 투입하여 도로 등의 개량사업 및 관개시설과 같은 확충사업을 포함하는 SOC 구축사업을 추진
 - PPP 프로젝트는 전력, 수송, 수자원, 의료, 농업, 사회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설기계 등 산업기계류 진출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 Vol.6, No.10 2012

기계기술정책

KIMM Technology Policy

| 발행처 | 한국기계연구원 전략기획본부 전략연구실

| 발행일 | 2012. 09

| 기획·편집 | 곽기호, 박효주

정성균, 김재운, 오승훈, 이정호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번지

| 전화 | (042) 868 - 7682 (전략연구실)